

# 癸未字本 〈十七史纂古今通要〉 解題

千 惠 鳳\*

## I.

《十七史纂古今通要》는 元나라 胡一桂의 撰述이다. 中國의 內府藏板을 볼 때 大德 6년 壬寅(1302)에 쓴 自序가 卷首에 붙어 있으니 그 무렵에 찬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司馬遷의 史記 이후의 十七史에서 三皇五帝부터 五代까지의 주요 史實을 裒集하고 자기의 論斷을 붙인 일종의 史評類라 할 수 있다. 淸나라 錢曾의 撰인 讀書敏求記의 書評을 원용하면, 宋 이래 歷史評論家가 많이 나왔지만 대개 그 평론이 산만·번잡하고 정작 논의하여야 할 곳에 있어서는 충분한 史論을 가하지 않은 것이 그 흠이라 지적하는 한편, 本書는 治亂이 자못 精允하니 宋儒의 隅見者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그 내용을 일람할 때 고금의 흥망과 치란의 자취를 瞭然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朱子綱目的 帝蜀을 貶斥하고, 資治通鑑의 帝魏를 따랐음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撰者의 男 昌祖가 校正晉注한 것에 의거 조선 太宗 3년(1403)에 銅鑄한 癸未字로 찍은 것인데, 그 전래는 제1~17권 全帙中 겨우 제16·17권뿐이다. 그것도 본시 1책으로 裝冊된 것인데, 分冊되어 현재 제16권은 서울大學校圖書館, 제17권은 國立中央圖書館에 각각 秘藏되고 있다. 그 중 제16권의 分冊은 본시 총 37장인데, 제26장의 앞 半葉이 缺落된 것을 비롯하여 제27장 및 28장을 잃어 34장 半葉이 현존되고 있다. 그 存張도 그간 閱讀이 잦아서 書口 쪽 아랫부분이 磨損되어 文字를 판독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또 그 밖에도 균데균데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 版式은 左右雙邊, 半郭 23.2×14.3cm, 有界, 每半葉 8行 17字 注雙行이고 版心에는 白口에 上下下向黑魚尾가 있으며, 크기는 25.6×18.7cm이다. 表裝은 原表紙 위에 黃色布標를 더하고 紅絲에 의한 五針綴裝法인 한국 고유의 線裝法으로 再裝되고 있다. 그리고 分冊된 國立中央圖書館藏 제17권 표지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墨書識記가 있다.

「京城大學教授 藤田亮策舊藏…一曰 李仁榮氏藏 宋朝表牋摠類 一曰 宋錫夏氏藏 北史詳節 一曰 十七史纂古今通要 乙酉(1945)十一月某日 三佛書屋主人手記」

書誌에 造詣가 깊은 三佛書屋主人 金元龍교수가 이들 癸未字本에 대한 광복직후까지의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전래 경위를 밝혀준 기록이다. 그중 十七史纂古今通要是 본시 日本人 藤田亮策의 舊藏이었던 것이 해방직후 三佛庵 金교수에게 입수된 것인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해방직후 어느 날 仁寺洞 金某古書肆에 들렀을 때 分冊된 2冊이 눈에 띄어 기쁜 나머지 즉시 구입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며칠 뒤에 古書肆主가 庚子字本 資治通鑑 제49권 1冊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癸未字本이 없고 그대신 庚子字本은 數種이 있으니 서로 바꾸자고 간청함에 分冊된 권17과 교환해 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그뒤 그 古書肆主를 동해 國立中央圖書館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16은 金교수가 手澤秘藏으로 애지중지해오다 뜻한 바 있어 서울大學校圖書館으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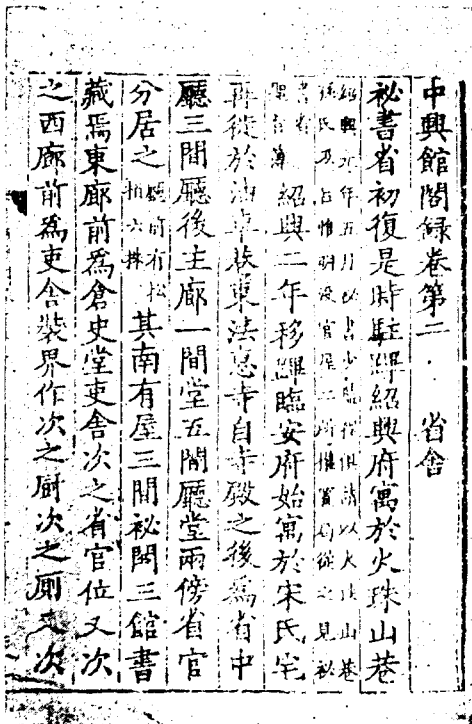
## II.

이 책은 朝鮮朝에서 최초로 鑄成한 銅活字인 癸未字로 찍어낸 점에서 그 가치가 크게 부각받은 물론, 麗·鮮의 鑄字術과 組版術의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活字印刷 자료로 구실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일찌기 國寶 148호로 지정되어 다른 癸未字本과 함께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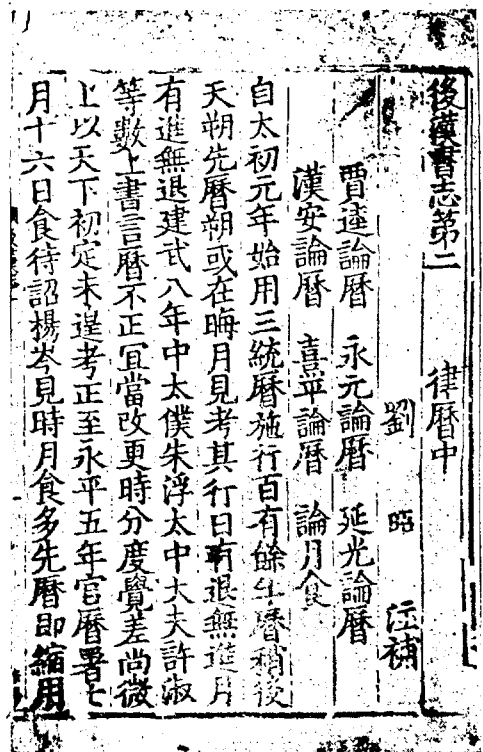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기반이 잡혀진 것은 제3대왕 太宗이 즉위한 이후가 된다. 태종은 왕권이 확립되자 행정기구를 독자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억불숭유책을 국시로 삼고 右文政策의 실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실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적을 고루 인쇄하여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태종 3년(1403) 2월에 고려말의 제도에 따라 설치했던 書籍院 대신 鑄字所를 신설하였다. 그 최초의 활자인 癸未字의 鑄造에 관하여는 陽村 權近의 鑄字跋에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 해 2월 19일에 始鑄하여 수개월을 걸려 완성하였는데 그 數는 大小字를 합쳐 수 10만개이었다. 활자 재료는 鑄字跋에 「範銅爲字」로 적혀 있듯이 銅을 녹여 字型에 부어 만들어냈는데, 건국초기인지라 백성의 경제생활이 어려워 그 물자를 거둬내는 것이 부당하여 內府의 銅鐵을 모두 내놓는 한편 부족한 것은 宗親 勳臣등 신료들이 자진 공출하였으며, 비용은 內帑金으로 충당하였다. 鑄造業務에 있어서는 判司平府事 李稷, 驪城君 閔無疾, 知申事 朴錫命, 右代言 李膺 등이 감독을 맡았고, 軍資監 姜天禔, 長興庫使 金莊侃, 代言司注書 柳蕘, 壽寧府丞 金爲民, 校書著作郎 朴允英 등이 직접 그 일을 관장하였다.

活字의 字本은 經筵에서 내놓은 古法가 수록된 詩·書·春秋左氏傳을 토대로 하였다. 그 字本이 된 3종의 책이 어느 나라에서 언제 간행된 版種인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현전의 癸未字本에 의하면 南宋板에서 볼 수 있는 字體를 방불케 한다. 이것이 宋板本이라는 것은 字體의 식별 이외에도 癸未字 가운데에 宋 太祖의 이름자인 「匡」을 「匡」과 같이 避諱 闕畫한 것을 刻字匠과 鑄匠들이 실수하여 그대로 鑄成해 낸 것이 나타나고 있어 또한 뒷받

침된다. 이와같이 宋板本에 의한 것은 사실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래와 같이 이를 歐陽詢의 楷字體로 단정하는 것은 再考가 필요하다. 宋板本の 字體는 既刊本の 翻刻 또는 摹刻의 경우를 제외하고 또 그밖에도 다소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시대와 지역에 따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北宋本の 字體는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顏眞卿體를 仿하거나 이에 歐陽詢의 筆意를 곁들인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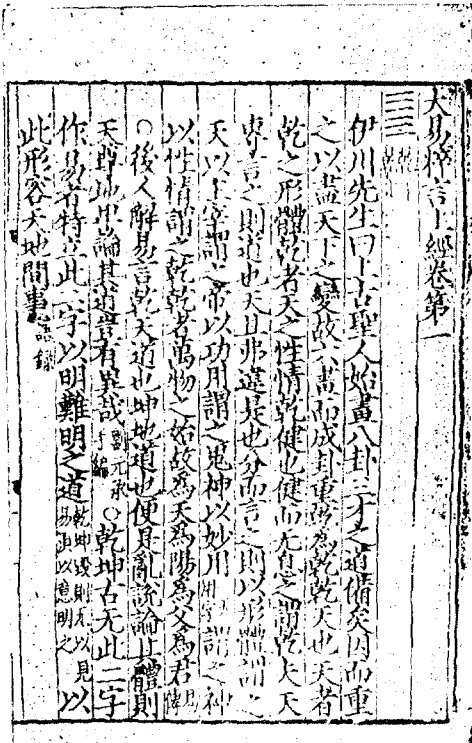


<圖 1> 北宋本 後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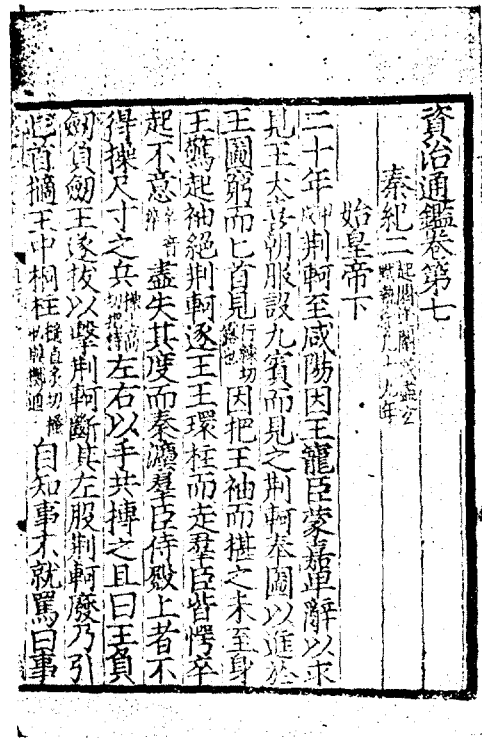


<圖 2> 南宋浙本 中興館閣錄

南宋本の 字體는 浙本 蜀本 閩本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중 浙本の 字體는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전형적인 歐陽詢體로서 엄격한 方筆의 遒勁한 楷字體이다. 蜀本の 字體는 2종으로 가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方筆의 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顏眞卿 또는 柳公權의 圓筆의 字體에서 볼 수 있는 神韻이 곁들여지고 또 橫畫에 宋나라 徽宗(1101~1129)의 독특한 瘦金體 筆意가 엿보이는 字體이다(圖 3 참조). 다른 하나는 中國의 書誌學者인 屈萬里 昌彼得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顏眞卿과 柳公權의 筆意를 길게 나타내면서 橫畫의 落筆處에 宋나라 徽宗의 瘦金體 筆意를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전자는 歐陽詢體의 方筆을 바탕으로 하고 이에 圓筆의 筆意를 가미한 것이며, 후자는 圓筆을 길게



〈圖 3〉 南宋蜀本 資治通鑑



〈圖 4〉 南宋閩本 大易粹言上經

나타내 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하겠다. 閩本은 〈圖 4〉와 같이 顏眞卿과 柳公權의 筆意를 절충한 점에서 蜀本과 비슷하면서도 圓筆의 神韻이 그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또 특이한 버릇이 가미된 字體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宋板本の 字體와 癸未字本の 그것을 비교해 보면, 〈圖 3〉에 의해 알 수 있듯이 蜀本の 字體 중 方筆의 歐陽詢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圓筆이 곁들여지고 橫畫에 날카로운 瘦金體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字體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癸未字의 字體를 종래와 같이 전형적인 歐陽詢의 楷字體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되풀이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印本을 비롯한 다른 癸未字本을 관찰할 때 어느 것이든 대체로 大小活字의 모양이 不整하고 크기가 일정치 않다. 그리하여 組版할 때는 四周를 고정한 틀의 上下邊에 界線, 그리고 그 界線에 魚尾까지 고착시킨 印板을 마련하고 각 行間에 활자가 딱 들어 맞도록 密着排字하였다. 따라서 옆줄이 맞지 않고 위 아래로 드러남이 심하며 뒷字와 아랫字의 획이 서로 물린 것도 매우 많다. 특히 癸未小字本인 新刊類編三場文選對策을 보면 각 行의

排字數에 있어서 2~3字的 드나들까지 쟁기고 있다.

高麗에서 13世紀 前期 무렵 印出한 官鑄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高宗 26년(1239)에 重彫한 翻刻本과 對査해 보면 癸未字本이 그보다 훨씬 치졸한 편이나, 한편 官鑄印刷가 元의 굴욕적 지배로 완전히 마비된 1세기여 뒤인 禡王 3년(1377)에 지방의 한 사찰인 興德寺가 재래의 방법으로 鑄造 印施한 佛祖直指心體要節과 비교해 볼 때는 기술이 그보다 나은 편이다. 고려말에 이르러 排元사상이 싹트고 주권의 복구의식이 대두되자 다시 종전처럼 書籍 鋪를 설치하고 鑄字를 만들어 經史子集에 걸쳐 고루 책을 찍어 독서를 넓게 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마침내 恭讓王 4년(1392) 정월에 그것이 제도상으로 강구되었지만 고려조가 곧 전복되어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했던 듯하다. 그런 까닭에 朝鮮朝에서 처음으로 癸未字를 鑄造할 때 몹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임금이 癸未字의 鑄造를 명하였을 때 「廷臣皆曰難成」云云 하였듯이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난색을 표명했던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太宗이 굳이 鑄造케 한 것이 바로 癸未字였기 때문에 그 印刷能率이 아주 저조하였다. 組版할 때는 印板 바닥에 먼저 밀랍을 깔고 송곳처럼 끝을 뾰족하게 만든 活字를 植字한 다음, 熱로 밀랍을 녹히고 平鐵板으로 위에서 균등하게 압력을 가하여 字面을 평평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식혀서 개개 활자가 굳어지면 인쇄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밀랍의 堅凝力이 약하기 때문에 인쇄도중 자주 활자가 움직이고 기울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시 밀랍을 녹여 부며 인쇄하여야 했으니 밀랍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면서도 하루의 印出量은 「不過數紙」였다고 전해진다. 그 紙數가 너무 적어서 誤植이 아닌가 여기는 이도 있으나, 世宗 2년(1420)에 2단계로 크게 개량한 庚子字의 경우가 「一日所印 多至二十餘紙」, 그리고 世宗 16년(1434)에 3단계로 정교롭게 개량한 甲寅字의 경우가 「一日所印 可至四十餘紙」임을 고려하면 하루의 印出量을 3~5紙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 1紙라는 것이 몇 張의 책지가 나오는 크기의 종이인가 하는 점이다. 孫寶基교수는 實錄에서 「數十餘紙」를 誤植한 「數千百紙」에 대해 「數十百面」의 착오로 보고 「紙」를 「面」으로 바로잡고 있으나, 당시 조상들은 오늘날의 페이지(page)를 뜻하는 「面」의 글자는 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全紙의 크기를 알아 보기 위해 冊板目錄에서 印紙數의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性理大全 紙一百八貼十七張○價綿布六疋(攷事撮要 書冊市准)
- 靑溪集五冊 容入紙十七卷十九張(各道冊板目錄 南原)
- 小字小學 壯紙十七貼十八張 墨一丁 白紙四折(古冊板所在攷 昆陽郡)
- 孟子諺解七卷 白紙十四束十九張半(嶠南冊錄 營上)
- 南軒集 白紙十八束七張二折(嶠南冊錄 營上)
- 李漢集 白紙二十三束六張三折(嶠南冊錄 營上)
- 月沙集 白紙二十八束五張三折二(嶠南冊錄 營上)

위의 印紙數 표시에 있어서 1貼 1卷 1束은 全紙 20張이고, 각 全紙 1張은 보통 크기의

책인 경우 4折되어 4張의 책장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張 다음에 「半」의 표시가 있는 것은 4折한 것 중의 半이므로 2折分인 2장의 책장에 해당하고, 三折은 4折한 것 중의 3折分인 3장의 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折二는 4折한 각 折을 다시 4등분한 것 중의 2등분에 해당하므로 결국 全紙 1장을 8등분한 크기의 책장중 7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에 든 印紙數의 사례로 미루어 보면 全紙 1張은 보통 크기의 책인 경우 4折되어 4장의 冊紙가 나오고, 아주 작은 크기의 책인 경우는 8등분되어 8장의 책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癸未字의 하루 印出量은 보통 크기의 책인 경우 12~20張이 되고, 아주 작은 크기의 책인 경우는 24~40張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인쇄조건하에서도 鑄字所가 꾸준히 책을 찍어 판매하여 권학에 필요한 서적을 학계에 널리 유통시켰으니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 하겠다.

### III.

癸未字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인쇄능률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世宗 2년(1420)에 庚子字가 주조되기까지 18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그 印本의 종류가 다양했음은 각종 기록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워낙 해가 오래되어 그간 인멸 또는 서실되고 오늘에 전래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겨우 6종을 헤아릴 수 있을 뿐이다.

- 十七史纂古今通要 卷之16·17 2册 國寶 148號. 卷16: 서울大學校圖書館 藏  
卷17: 國立中央圖書館 藏
-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之4·5·6 3册 國寶 149號. 卷之4·5 2册: 潤松美術館 藏  
卷之6 1册: 趙炳舜 藏
- 宋朝表牋總類 卷7 1册 國寶 150號. 서울大學校圖書館 藏
- 纂圖互注周禮 卷1·2 1册(缺落本), 日本 國會圖書館 藏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5·6 1册, 趙炳舜 藏
- 陶隱先生詩集 卷1·3 2册, 卷之1 1册: 趙炳舜 藏  
卷之3 1册: 故金完燮 藏

위의 6종 중 앞의 3종은 이미 國寶로 지정되었으나, 그 다음의 3종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 중 纂圖互注周禮는 缺落本이긴 하나 日本으로 유출된 것이 못내 서운하다. 그리고 끝의 歷學三場文選對策과 陶隱先生詩集은 癸未小字 印本인 점에서 麗·鮮 兩朝의 鑄字術 및 組版術 연구상 중요한 활자인쇄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陶隱先生詩集은 高麗 李崇仁의 저술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한국인 저술의 癸未字本인 점에서 그 가치가 한층 더 돋보여진다. 그밖에도 癸未字本을 翻刻한 것으로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와 禮記淺見錄이 알려지고 있다. 전자는 端宗 원년(1453) 王이 集賢殿으로 하여금 訛誤를 교정시켜 全羅道都觀察使 金連枝에게 명하여 그 다음해인 端宗 2년(1454) 여름

錦山에서 翻刻케 한 刊本이다. 후자는 太宗 7년(1407)에 印出된 癸未字本에 의거 동왕 18년(1418) 3월 濟州牧判官으로 부임한 河澹이 按撫使 李諫에게 청하여 翻刻한 刊本과 그 뒤 肅宗 13년(1687)에 濟州牧 宋廷奎가 重刻한 刊本の 2種이 아울러 通行되고 있다.

이렇듯 癸未字本은 그 翻刻本을 합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겨우 8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두 귀중한 인쇄자료로 평가되고 있거니와, 여기서는 그 중 十七史纂古今通要의 印出經緯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太宗實錄》太宗 12년 6월조에 「賜申得財米及綿布 得財遼人也 造華紙以進 下鑄字所 印十七史 賜得財米五石 綿布四匹 令紙工傳習」이라 한 記事가 있다. 그 기사중의 ‘十七史’를 文字 그대로 해석하면 中國의 史記부터 新五代史까지 방대한 卷帙인 正史를 뜻하는 것이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癸未字의 1日印出量이 不過數紙인 점과 十七史를 印出한 4개월후인 그 해 10월에 43卷本 大學衍義를 겨우 印出해낸 점 등 저간의 인쇄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그 당시에 卷帙이 浩繁한 十七全史의 印出은 정녕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 기사에 적힌 十七史는 다른 略稱書名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데, 그 당시까지 나온 十七史에 관한 撰述로서는 宋나라 呂祖謙의 十七史詳節 273卷을 비롯하여 宋史藝文志 史部 史鈔類 所收의 作者未詳인 十七史贊 30卷과 名賢十七史確論 104卷, 宋나라 王令 撰의 十七史蒙求 單册本, 그리고 元나라 胡一桂 撰의 十七史纂古今通要 17卷 등이 알려지고 있다. 그중 十七史詳節과 名賢十七史確論은 卷帙이 또한 十七全史 다음으로 많고 十七史贊은 作者未詳이며 十七史蒙求是 兒童用임을 고려하면 당시 유생들의 권학에 적절했던 史書는 17卷本인 十七史纂古今通要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하여 金元龍교수도 十七史의 書名이 붙은 癸未字本으로서의 이것이 現傳의 唯一本이고 또 그 卷帙이 별로 많지 않은 점에서 本書가 바로 實錄에서 언급한 十七史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引用記事를 보아 알 수 있듯이, 十七史는 遼人 申得財가 만들어 진상한 華紙, 즉 中國紙를 사용하여 鑄字所에서 찍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전의 제16·17권 2册의 紙質을 보면 國產 楮紙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것이 華紙를 만드는 製紙法으로 造紙하여 진상하였다면 몰라도 文意가 염연히 華紙, 즉 中國紙를 만들어 진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를 무리하게 관련짓기 위해 「우리의 楮紙」를 「國產華紙」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다. 鑄字所가 十七史纂古今通要를 印出할 때, 먼저 申得財가 만들어 진상한 華紙의 紙數대로 찍어낸 다음 더 필요한 部數를 우리의 楮紙로 찍어내서 華紙印本은 王에게 올리고 그밖의 것은 보급용으로 사용하였는 데, 그 보급용의 零本이 오늘에 전래된 것이라고. 만일 이러한 생각이 옳은 것이라면 上위의 十七史는 바로 太宗 12년(1412) 6월에 印出한 現傳의 十七史纂古今通要到 해당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郡中乞假來梓訪河憲躬先志  
 况祗面數語入下惟忽一書  
 引少弟為汝雅確每以山自春  
 同契中事心知何日得相匡  
 哲子信事試問津陽話  
 差人印屬帶到  
 派亦自能利  
 字均音字上國  
 此古卷身  
 於致也